



◇만해 한용운 스님의 옥중 서신을 담은 신문.

한국근현대사에서 불교가 끼친 민족사적 역할을 조명해볼 수 있는 '불교와 민족운동' 특별기획전이 22일까지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관(제7전시관) 특별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개항 이후 불교의 근대화운동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독립운동 등 불교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족운동과 그 정신

민족운동 중심 불교역할 조명

독립기념관, 22일까지 특별전

'불교근대화와 식민지불교' 등 여섯주제

경허스님 친필등 희귀실물자료 350여점

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불교의 근대화와 식민지 불교, 불교의 독립운동, 전통 불교의 수호, 불교의 자주화, 해방과 민족불교 등 6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전시물로는 3.1운동 당시 스님들이 작성한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 한국불교에서 선풍(禪風)을 중흥 시킨 경허스님의 친필과 제자 만공스님의 친필 '세계일화(世界一化)'와 유물 가사 및 발우, 만해스님의 <불교대전>과 목각판 '오도승'



◇범어사 3·1 운동기념비. 사진으로 전시된다.

및 <조선불교유신론> 등 희귀 실물자료 350여점에 이른다. 특히 이번 전시는 불교의 민족운동 중심으로서 한국 근대불교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한국근대사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재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기념관 관계

포항 MBC다큐멘터리 '남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

포항 MBC의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남산 4부작(기획 이보근, 연출 김육한)'이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선정하는 5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방송위원회는 "남산"은 경주 남산에 깃든 우리 민족의 역사적 뿌리와 미학적 근원을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한 동시에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낸 세련된 연출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남산'은 '노천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 남산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속속들이 파헤친 대작. 제작비 2억원을 들여 기획에서 촬영까지 2년에 걸쳐 남산 곳곳을 훑었고 남산 불상의 원류를 찾아 중국, 파키스탄 해외로까지 갔다. 지방 방송국의 낙후되지 않았을 재정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모험'이었던 셈. 김육한 PD는 "겨레의 혼이 담긴

"남산에 깃든 역사적 뿌리 아름다운 영상에 담아"

으로 복원한 불상의 미소 등을 볼 수 있다. 3부 '실록'은 남산으로 흐르나니'에서는 중앙아시아와 중국 등의 불교유적 답사를 통해 남산의 세계사적 의의를 살핀다. 4부 '남산, 역사에서 영원으로'는 남산 유적을 영상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아울러 남산의 보존방안을 찾아본다. '남산'은 포항 MBC 홈페이지(www.phmbc.co.kr)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7-8월 경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5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된 포항 MBC다큐멘터리 '남산 4부작'의 한장면..

가볼만한 전시회 3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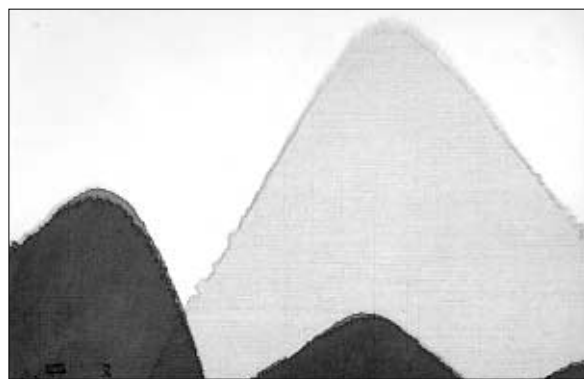


◇윤상민 작, '회(回)부동'.

윤상민씨 첫 서예전

25일까지 백악예원

서예가 청우 윤상민씨가 19일부터 25일까지 인사동 백악예원에서 첫 개인전인 '청우 서전'을 연다. 그의 일생의 화두는 서도의 '선(線)'과 불교의 '선(禪)'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행서, 해서, 초서, 예서는 물론 국한문 혼서에 문인화까지 소개된다. (02)734-4205.



◇성륜스님의 '첩장충만'.

첩장충만의 禪의 표현

성륜스님 작품전

선화가 성륜스님 작품전 '첩장충만(疊障層層)'이 18일부터 24일까지 갤러리 서호에서 개최된다. 91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설치미술과 행위미술전을 열었을 정도로 독특한 화풍을 선보인 성륜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화백색 연한 수묵의 담채로 첩첩 산중의 풍경을 선(禪) 적으로 표현한 작품 30여점을 벽에 건다. (02)723-1864.



◇김인숙 작, '중국비취 목걸이'

구슬목걸이 이야기

20개국 수집 구슬 선비

19일까지 성곡미술관에서 마련되는 구슬보살 김인숙 교수(국민대)의 '구슬목걸이 이야기'에 가면 인도를 비롯한 티베트, 중국, 영국, 모로코 등 20여개국에서 수집한 각종 각색의 구슬을 감상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비취, 산호, 진주, 수정 등을 수집해 목걸이와 브로우치로 가공했다. (02)737-7650.



노래하는 포교사 송춘희씨

새음반 '영덕은 내고향' 내보

노래하는 포교사 송춘희 씨가 64·사 진가 신곡음반 '영덕은 내고향'을 내놓았다. 이번 음반 출시는 '90년대 내고향 노래운동'을 발원한 작사가 김집도 씨와 답송중 영덕에 관련된 노래가 이미 13년전에 지어졌지만 가사를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는 것을 송씨가 알아서부터 시작했다. "약산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평북 영변이 제 고향입니다. 영덕도 영산홍이 만

발한 꽃의 도시라 우선 마음에 와 닿았지요. 또 흥겨운 민요조에 누구나 한번 따라 들으면 쉬운 가락이라 영덕인들의 삶의 애환을 노래로 달래 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음반 출시에는 '영덕은 내고향'을 비롯해 '인생길', '천년향', '노래가까 차차차', '할아버지 썸짓', '신이별가' 등 16곡이 수록돼 있다. 또 신곡에도 송씨의 대표 히트곡이라 할 수 있는 '수덕사의 여승'과 '영산강 처녀'도 들어 있다. (011)783-4587.

김주일 기자

음악으로 듣는 소설 '토지'



김영동씨 70여분 CD로 구성

작곡가 김영동 씨(52·사진)가 만든 서사 음악극 <토지>가 CD로 제작돼 출판된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를 원작으로 해 만들어진 이 음악극은 이미 지난 95년 9월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 50주년 작품으로 초연된 바 있다. 이번에 나온 음반은 당시 공연에서 선보였던 음악들을 새롭게 70여

분 분량으로 재구성한 것. 음반에는 극의 주제곡이라 할 수 있는 '그대는 바다입니다' (김상)를 비롯해 '가네 가네' (용이와 월선의 이중창), '사랑가' (김상과 서희의 이중창), '토지는 어머니여' (서희) 등 모두 30여곡이 실려있다. 내용은 총 5부작으로 된 '토지' 중 1, 2부를 축약한 것으로, 김상과 서희, 용이와 월선을 두 축으로 해 각각의 독창, 이중창, 합창 등이 차례로 이어지며 즐거움을 이어 나간다.

김주일 기자

방송 프로그램

| | |
|---------------------|----------------------------|
| SBS 3부작 방송 | 블로그텔레비전 <ch 32> |
| 06:25 신형365일 | 11월 08:30 정세채의 '밤상에 도가 있다' |
| 08:00 BBS 뉴스광장 | 12월 08:30 강법선의 난과 생활 |
| 11:00 행복스튜디오 황정원입니다 | 13월 19:40 아 부처님이다 |
| 14:45 고승열전 | 14월 11:30 퀴즈 아담법석 |
| 18:15 유쾌한 저녁길 | 15월 09:30 무비스님의 변화강의 |
| | 16월 12:20 자비의 천수천안 |

아이리이트

- 불교방송
 - ▷ 노정렬의 유쾌한 저녁길 1, 2부(17일 18:15-20:00) - 정보와 오락이 어우러진 퇴근길의 휴식처. '노정렬의 유쾌한 저녁길' 화요일 순서에서는 세광코리아 한광호 실장이 직장인의 재테크와 내 집 마련을 위한 경제정보를 들려준다.
 - 블로그텔레비전
 - ▷ 정세채의 '밤상에 도(道)가 있다'(11월 08:30-09:05) - 11월 방송되는 세 번째 시간에는 '음식과 성(性)'을 주제로 시대와 지역, 먹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음식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본인의 요청에 의해 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철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 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확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경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 전생퇴행 파동명상-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 원격제경 파동명상-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사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에 **태이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자(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6월 2째주, 4째주

「동방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많은 스님, 법사님들이 파동명상을 통하여 경험하신 신묘하고 놀라운 경험담이 너무나 많습니지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 옮기지 못하고 작고 가벼운 경험담만 허락을 받아 옮기고 있습니다.

◆ 이 코너는 저희 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스님·법사님들의 놀라운 경험담을 싣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중에서 토굴 수행을 하시고 계신 보명스님. 큰딸이 집 뒷산에 등산을 다녀온 뒤부터 갑자기 인 명스님은 저희 연구소에서 수행하시던 이틀째 되던 어정애가 생겨 말을 못하게 되어 유학을 포기해야 할 새벽, 파동명상요법으로 유체이탈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순간 스님은 다차원의 공간으로 의남을 옮기면서 평소 스님과 인연이 있던 신도들과의 영적인 친견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한 집안에서 세 명의 자식들이 줄줄이 40살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원령靈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다른 신도의 집에서는 외국(*프랑스)에서 공부하다 집안에 초상이 나서 잠시 귀국했던

동방명상전생연구소

문의처: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홈페이지: www.dongbang21.co.kr